



##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올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에 접어 들었다. 하도 큰 일도 많고 놀랄 일도 많아서 그런지 이것저것 따져 볼 겨를도 없이 연말까지 떠밀려 온 듯하다.

정치권 이야기는 아예 꺼낼 필요조차 못 느낄 정도로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었으며 이보다 더 큰 일은 경제여건이 편하지 않다는 현실이다.

다행히 정책당국에서 걱정말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닌 듯 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실물경제는 정말 심상치 않다.

‘소비심리가 얼어 붙었다’ 라든가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는다’, ‘기업이 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 라는 등의 아우성(?)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이전 위헌결정, 환율, 유가 등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요동을 치는 가운데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분기마다 발표하는 정기경제전망 보고서를 내지 않았는데 이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니 인쇄업계의 경기상황은 새삼스럽게 논할 때가 아니라고 하겠다.

실제로 고정거래처의 인쇄물량이 평균해서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각종 홍보용 인쇄물을 비롯 연말 특수인쇄물인 캘린더의 수주량은 엄청나게 줄어 들었다.

이런 지경이고 보니 웬만한 인쇄사는 인쇄기 리스료 부담에다가 늘어나는 직·간접 생산비의 증가로 그야말로 ‘서바이블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옆친데 덮친격으로 아직도 덤핑약습이 주위를 맴돌고 있어 대다수 인쇄인들을 슬픔에 젖게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인쇄사에서 계절적으로 여유있는(?) 시설을 가동시키기 위해 예정가격의 40%대로 들고 가는가 하면 조달청요금의 90%선에서 양질의 인쇄물을 납품하던 인쇄사의 일을 50%대로 낮아 채 감으로써 거래처까지 당황하게 만든 사례가 있는데 거래질서를 깨뜨렸다는 손가락질은 차치하고라도 도덕적 비난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인쇄인들이 그저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적지않은 인쇄인들이 끈질긴 노력으로 틈새시장을 파고 들어 수주량을 늘리는가 하면 전문성을 살려 독특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성공사례도 늘고 있다.

사실 옆에서 지켜보면 웬만한 사람이면 지쳐 쓰러졌을텐데 침착함 속에 앞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인쇄인들을 보노라면 그 놀라운 배짱과 뜻심에 경의를 보내게 된다.

싫든 좋든 한 해가 또 세월의 나이트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온갖 나쁜 기억과 곱은 일은 일단 과거로 떨쳐버리고 새해에는 좋은 일을 많이 만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애독자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과 기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익 · 편집주간〉